

2024

사목계획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선교, 참여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시노드 실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의 현황 파악

공동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의가 아닌

“ 교회론적인 방향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

"시노드 교회란 바로 '친교, 선교, 참여'의 교회란 뜻 아니겠습니까?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 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수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

(시노드 교회 의안집 52항)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어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해방시키는 한 인격과의 만남, 곧 구원자이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교는 좋은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보다는 때로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
는 것만을 설명하다 보니까 선교가 늘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선교라는 말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게 들
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마케팅적인 인원을 늘리는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가 만난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 좋은 하
느님을 만난 것이 매우 기쁘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선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 3, 16)
”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고 성사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전체가 바로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행하신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입니다.

2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

선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기쁨 120항)

1

'친교'란

RIGHT NOW

그저 사회적, 사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수직적 차원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라는 수평적 차원**

(시노드 의안집 46항)



1

친교,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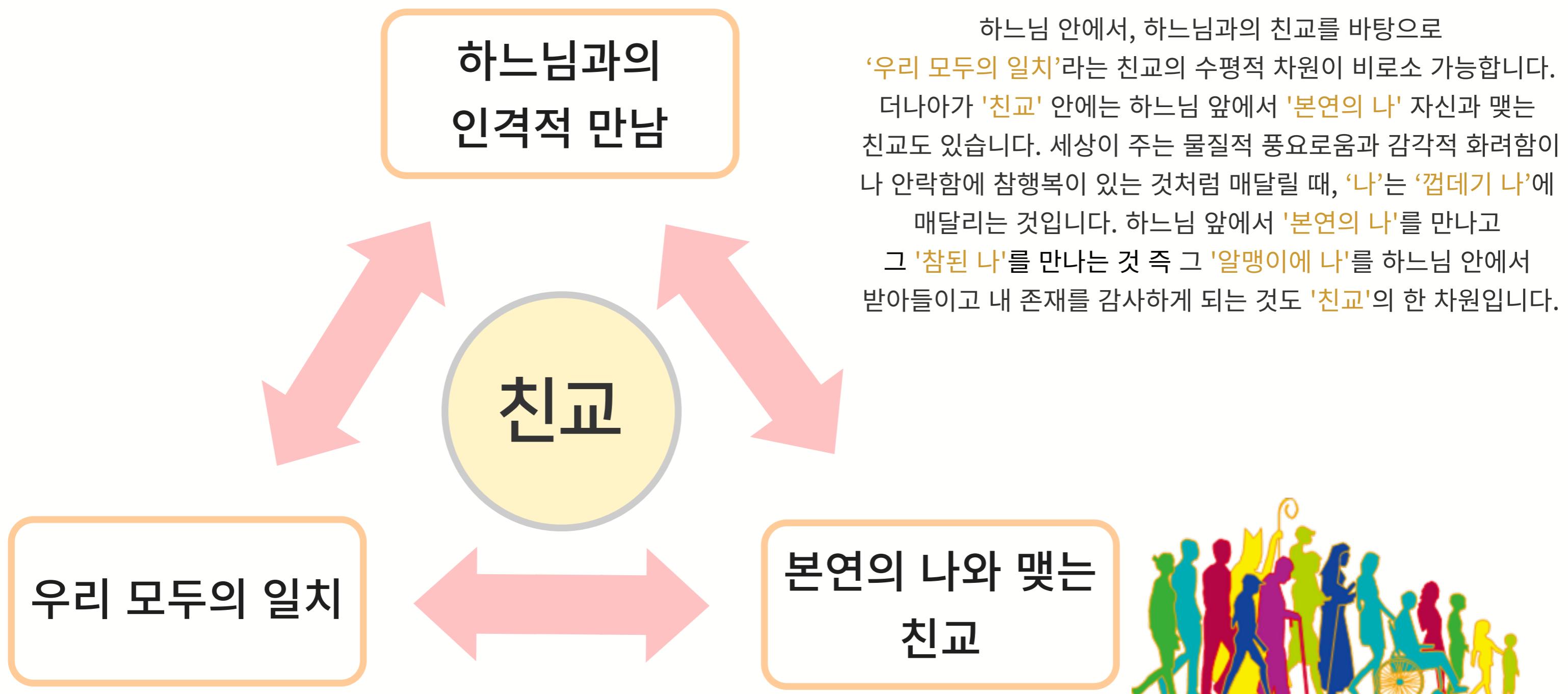
RIGHT NOW

성사, 말씀, 기도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을 포함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성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등
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친교는 선교적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자본이 모든 것보다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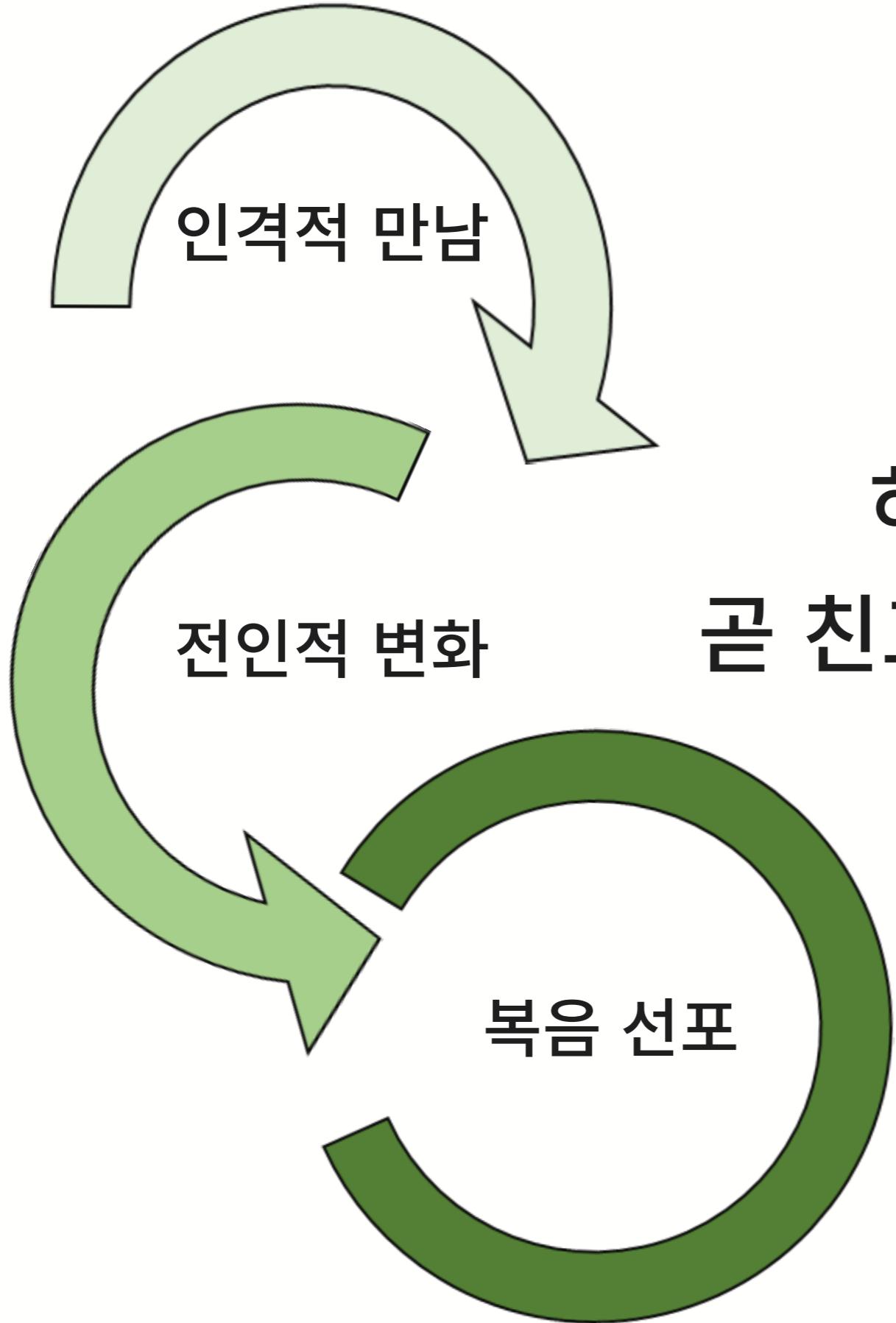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중심주의 하느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느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아주 필수적 전제이고, 또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필수적 전제이고 지향**



시노드의 어원 : '함께 걸어가는 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 받은 주인공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2024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한 해가 됩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나 나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 세상의 주인공으로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의 빛과 기쁨이 사회 안에서
매력적으로 풍겨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특별히 2027년에 한국 교회 모두가 참여하고,
서울대교구에서 주최하게 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청소년·청년들의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23년 대림절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2024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신정

신년하례식

2

3

4

5

6

5(금)~7(일) 신나는 겨울 성경 캠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024년 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설날

11

12
대체 휴일

13

14
재의수요일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정월대보름 '윷놀이'

26

27

28

29

1

2

2024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5

26

27

28

29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주님수난성지주일/

주님부활대축일

25

26

27

28

29

30

2024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3

4

5

6

7

8

9

10
22대 국회의원
선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사목협의회 엠마오

28

29

30

1

2

3

4

2024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1

2

3

4

5

어린이날

6

대체 휴일

7

8

9

10

11

12

2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모의 밤

26

27

28

29

30

31

1

2024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본당 주보 성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024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024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3

24

25

26

27

28

29

30

31

2024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7일(토)~8일(주일)
본당의 날 기념
전신자캠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석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2024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9

30

1

2

3
개천절

4

5

6

7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2024년 1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1

2

봉사자의 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일(금)~30일(토) 사목협의회 워크샵

2024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제

26

27

28

29

30

31

1

2

3

4